

슈퍼대동제 24일 개막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 · 축하공연 등 다채

‘별이 빛나는 슈퍼대동제’가 총학생회(회장 정현철) 주최로 오는 24일부터 3일간 제주대 곳곳에서 열린다. 이번 대동제는 대학 구성원들과 도민들이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준비됐다.

대동제에서는 거리 공연 문화를 맛볼 수 있는 ‘거리퍼포먼스’가 진행되며 다양한 개인장터도 3일 내내 운영된다.

첫날인 24일에는 교훈탑 잔디밭 무대에서 오후 6시 반부터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가수 싸이의 뮤직콘서트 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농구대회도 진행되는데 한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참여할 학생은 4명이 팀을 이뤄 오는 17일까지 총학생회로 신청하면 된다.

25일에는 단대별로 참여해 미션

을 수행하는 ‘도전!! 99초를 잡아라’가 교훈탑 잔디밭 무대에서 오후부터 진행된다.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부터는 ‘닌텐도 Wii 복싱 게임’이 시작된다. 게임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형 LED를 통해 복싱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게임을 즐기고 싶은 학생은 오는 19일까지 총학생회로 신청하면 된다.

이날 풋살대회도 열린다. 풋살대회는 음광밭에서 이날 9시부터 다음날인 26일까지 진행된다. 참여할 학생은 6명이 팀을 이뤄 오는 19일까지 총학생회로 신청하면 된다. 풋살대회 참가비는 5만원이며 상금을 외에 모든 참가비가 월드비전을 통해 불우이웃에 기부된다.

이와 함께 이날 저녁 6시 30분부터는 락페스티벌이 준비돼있다. 락페스티벌에서는 가수 레이저본, 크

라임넷, 노브레인이 공연을 한다.

대동제 마지막날인 26일에는 오전 11시부터 교훈탑 잔디밭 무대에서 과별 대항으로 문제를 푸는 ‘슈퍼 골든벨’이 진행된다. 참여할 학생은 같은 학과 학생 5명이 팀을 이뤄 오는 14일까지 총학생회에 신청하면 된다. 오후 2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사라토미의 전자바이올린 공연도 준비돼 있다.

또 오후 6시부터는 학생들이 숨은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나도 슈퍼스타’가 진행된다. ‘나도 슈퍼스타’에서는 노래 4팀, 춤 4팀, 연기·차력·개그 2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할 학생은 오는 14일까지 총학생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인원제한은 없다.

폐막식은 이날 오후 7시 반부터 축하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축하공연으로는 가수 은지원이 공연할 예정이다. 고희성 기자



힘내라 힘!

지난 7일 대운동장에서 열린 인문대학 체육대회에서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이 줄다리기 시합에 참여하고 있다.

고용희 기자

등록금 전국 최저 수준

전국 평균 684만원보다 280만원 저렴

국공립대 · 계열별로도 전국 최저

등록금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대학의 등록금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말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 4년제 일반대학의 등록금 현황, 학생 1명당 연간 교육비 등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의 2010년도 연간 등록금은 평균 404만9000원으로 전국 176개 4년제 대학 평

균 684만5000원 보다 280여만원이 나 낮았다. 또 전국 국공립대 평균 447만8000원 보다는 43만원 저렴해 경제적으로 최적의 교육 여건을 보여주고 있다.

등록금 1위는 연세대로 지난해보다 3.18% 증가한 907만4000원을 받았다. 이어 추계예술대(895만1000원), 이화여대(881만9000원), 을지대(875만원), 상명대 천안(870만8000원), 홍익대 조치원(870만1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 이상인 곳은 전국 35개교였다.

8400원)은 고려대보다 519만원 낮아 전국 대학에서 8번째로 낮았다.

전국대학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의 경우 홍익대 조치원캠퍼스가 91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계열은 연세대(861만9000원), 교육계열은 한림대(885만3000원), 자연계열은 을지대(924만5000원), 공학계열은 고려대(969만6000원)가 각각 1위였다.

한편 우리대학 2008년도 학생 1명당 연간 교육비는 1016만4300원으로, 국공립대 평균인 1072만3000보다 조금 낮았고, 전국 평균인 979만6000원보다는 높았다.

재정과 관계자는 “우리대학은 저비용·고효율의 경영 목표에 따라 낮은 등록금을 받으면서도 교육효과를 극대화시켜왔다”며 “전국 최저 수준의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정규직 취업률을 기록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복 대기자

광역경제권 사업에 2개 사업단 선정

제주 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사업단(단장 양진건 교육학과 교수)과 증강현실형 관광상품 개발사업단(단장 이봉규 전산통계학과 교수)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에 선정됐다. 두 사업단은 3년간 55억 원을 유치했으며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제주 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사업단은 제주 관광의 새 활로를 펼치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

이다. 이 사업단은 유배문화답사길 개발, 유배문화를 21세기에 맞게 새롭게 창작하여 드라마, 뮤지컬, 전통 행사 등을 복원하거나 재창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증강현실형 관광상품 개발사업단은 제주관광의 새로운 수요를 확보하고 상품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사업은 증강현실이라는 신기술을 이용해 관광상품의 정보를 생동감 있고 정

확하게 전달해줄 뿐만 아니라 제주 관광명소에 접목시켜 보다 효과적인 홍보에 기여하게 된다. 증강현실 기술은 현실세계에 가상세계를 덧씌우는 방법이다.

산학협력단의 김준호씨는 “두 사업은 제주 관광의 새 활로를 펼칠 수 있는 잠재성이 인정된 사업”이라며 “제주도 전체의 파급효과가 막대한 신성장사업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유 수습기자

인터뷰- 미소국가대표 2기 선발된 ‘탐라는 미소’ 팀

“따뜻한 미소 짓는 제주 만들어요”



‘탐라는 미소’ 팀. 왼쪽부터 김상걸(관광개발 3), 이진아(초등교육 3), 고경숙(경영 4), 이동천(관광개발 3), 진명지(언론홍보 4)씨.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미소’는 언어의 벽을 뛰어넘어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이다. 제주 사회에 이 힘을 전파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탐라는 미소’ 팀. 이들은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주관한 대학생 서포터즈 미소국가대표 2기에 선발된 팀이다.

팀원인 김상걸(관광개발 3), 고경숙(경영 4), 이동천(관광개발 3), 이진아(초등교육 3), 진명지(언론홍보 4)씨를 만나기 위해 법정대 미디어제작실을 찾았다. 문을 열자마자 팀원들이 정말 ‘탐라는 미소’로 반겨줬다. 팀원들과 꼭 어울리는 재미있는 팀명을 지은 것 같았다.

“탐라는 미소라는 팀명은 ‘탐나는 미소’라는 의미와 함께 ‘탐라(제주)-미소’라는 공식을 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주를 생각하면 바로 ‘미소’를 떠올릴 수 있도록 제주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제주사회 곳곳을 뛰어다니고 있다. 먼저 제주시청과 연계해 각종 축제에서 홍보부스를 지원받기로 했다. 홍보부스에서 미소캠페인을 벌이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6·7월 중에는 제주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외국인 분들에게 사진을 찍어드리고 옆서로 제작해 집으로 발송해드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외국인 분들이 옆서를 받

으면 제주에 대한 추억이 떠올라 다시 제주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더불어 외국어로 관광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인 ‘1330’을 스티커로 제작하기도 했다. 스티커를 외국인이 자주 다니는 곳에 붙이고 홍보를 할 계획이다. 지난 2일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외국인들에게 1330 스티커가 붙여진 물티슈를 나눠주며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외국인을 만날 때 미소는 최고의 바디랭귀지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이지요.”

이런 그들이지만 가끔은 벽에 부딪히는 일도 있다고 한다. “관광지에 갔는데 공문을 가져

오라며 못 들어가게 하는 곳이 있었어요. 한국방문의해 관련 퀴즈를 내려고 박스를 들고 다니는데 모금함인줄 알고 거부감을 표현하던 분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지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결과. 벽에 부딪혔던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서 망설임이나 포기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바로 ‘미소의 힘’ 때문이다.

“용두암에서 굴을 파는 분에게 퀴즈를 냈던 적이 있어요. 날씨가 더워서 모두 지쳐 있었는데 그분이 끝까지 웃으며 퀴즈를 풀어주셨어요. 선물로 굴도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들이 활동을 시작한 것은 한 달에 불과하지만 이미 제주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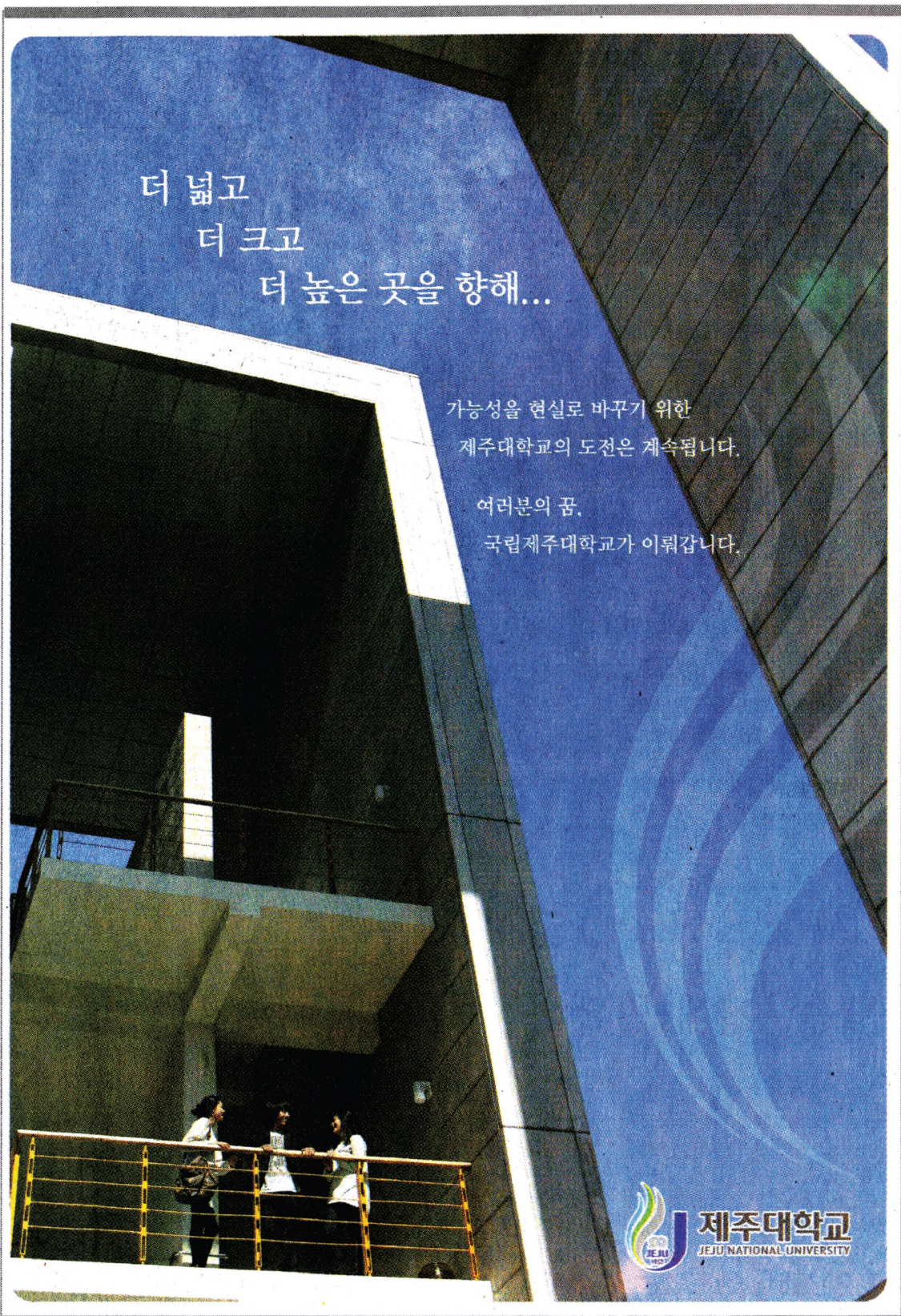
“우리 활동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분씩 얼굴에 미소를 찾게 된다면 결국 제주 전체가 미소 짓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희성 기자

사 령

명선아 (언론홍보 1)

4월 14일자

수습기자에 임명함



학생회 재정 투명성·책임성 제고해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학생들은 궁금

“재정을 투명하게, 아주 사소한 것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 총학생회인 슈퍼스타의 공약 사항 중 하나다. 학생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총학생회 예산·결산을 매달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이다. 이렇듯 학생자치기구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신임을 얻고 그 존재의 정당성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학교는 학생자치위원에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전산 회계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산회계시스템은 자치위가 사용한 예산을 인터넷을 통해 바로 기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사용한 예산을 당일 바로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자치위가 학내 홈페이지나 중앙자치위 홈페이지에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

는 재정보고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홈페이지 재정보고를 공약으로 내건 총학생회는 매월 초마다 정기적으로 재정 보고를 진행해 2,3,4월 재정 사용내역이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있다.

한편 총학생회나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는 재정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는 1~2월 재정보고만이 이뤄졌고, 총대의원회와 동아리연합회에는 아무런 재정보고가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정대학의 한 학생은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신뢰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대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문대학의 한 학생은 “재정 보고는 공약사항을 떠나서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회칙을 통해 재정보고를 의무화해야 된다”

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대는 회칙 1장 9조(의무)를 통해 예·결산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회원들에게 각 사업이 끝나고 난 뒤 15일 이내에 학내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적으로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현철(전기공학 4) 총학생회장은 “공약사항을 떠나서 학생들에게 재정보고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재정보고를 의무화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미희(윤리교육 3) 총학생회장은 “다른 업무들로 인해 재정보고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재정보고 자료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재정보고를 의무화 하는 것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3500억 들여 최첨단 ‘제주암센터’ 설립

제주대-유니드 파트너스 양해각서 체결

제주대가 3500억원대 민자를 유치해 최첨단 가속기를 배치한 암치료 전문병원 설립에 나선다.

제주대와 (주)유니드파트너스, 제주대학교병원(원장 김상림 의학과 교수)과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원장 강지용 산업융용경제학과 교수)은 최첨단 가속기를 이용한 암치료 전문병원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지난달 26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결된 이번 MOU체결식은 (주)유니드파트너스가 제주대학교 부지 내에 암치료용 가속기를 이용한 ‘제주암센터’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상호협력

관계와 상호이익추구에 그 목적이 있다.

“제주암센터” 건립은 가속기 설비, 압진단 장비, 기타 장비대금으로 약 2천5백억원이, 제주암센터 건축비로 약 5백억원, 운영비로 약 5백억원 등 총사업비 3천5백억원이 민자유치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MOU체결로 인해 (주)유니드파트너스는 제주도와 협력체제 구축 및 업무협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이하 SPC)의 설립 및 각종 행정업무 및 총체적인 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왼쪽부터 김상림 제주대병원장, 허향진 총장, 조규면 유니드파트너스 대표이사, 강지용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제주대는 제주암센터와 부대시설 설립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며, (주)유니드파트너스가 제주도 행정

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보배 기자

“톡톡 튀는 발상 기다립니다”

경영사업단, 발전기금 아이디어 공모

경영사업단이 발전기금 모금 아이디어를 오는 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학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전기금 모금의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

고자 열린다.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실제로 기금 모금에 활용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공모는 gstwo@jeju.ac.kr을 통해 자유양식의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결과 발표와 시상식은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시상내역은 ▲최우수상(1명)-100만원 ▲우수상(1명)-50만원 ▲장려상(2명)-20만원이다. 양성국 경영사업단장은 “우리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명품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전기금 모금 아이디어 공모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또 “외부 기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어려운 사정이 있었지만,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에서 자동이체 해 주시면 발전기금 1000억 돌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제가 ‘제주물’ 만났다… 제1회 페스티벌

물의 소중함 일깨워

제1회 Jeju water festival이 지난 8일 ‘물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센터장 이선주, 이하 센터)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물과 관련된 많은 산업과 제품, 연구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됐다.

체험행사도 라이프 스트로우(lifestrow) 부스도 준비됐다. 라이프 스트로우는 물이 오염돼 있는 개발 도상국에서 구호 요원 등의 식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휴대용 정수 빨대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식품생명공학과 학생들은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한 ‘비트(빨간 무)를 활용한 와인과 막걸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와요음악당 무대에서는 비보이, 난타 등 축하공연과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장기자랑도 이어졌다.



지난 8일 야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1회 Jeju water festival에서 사람들이 비트(빨간 무)를 활용한 와인과 막걸리를 시식하고 있다.

한편, 물인재양성센터는 지난달 14일 (사)한국산학기술학회로부터 대한민국 산학협력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으로 선정된 ‘에듀워터’ 프로그램은 제주물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수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다.

이와 함께 센터는 지난달 26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 지역 주류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브랜드 강화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용희 기자

이덕희 교수 강연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사회과학연구소(소장 박경숙)가 지난달 30일 이덕희(하와이대학) 교수를 초청, ‘하와이 한인 여성 이민사를 통해 본 한국 다문화 정책의 한계’를 주제로 특강했다.

이 교수는 먼저 하와이 한인 여성 이민사에서 여성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한인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한국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가족을 ‘한국화’하는 것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다문화가족의 한국화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차공간 태부족

대학을 찾아온 도민들이 행사장 주변 주차장이 부족해 길가에 마주잡이로 주차함에 따라 불편이 가중.

저녁이나 주말이면 아라뮤즈홀 주변에서는 주차 공간이 없어 전쟁을 치르며, 학생회관 주변에서 열리는 행사가 열리는 날에는 찾길 양열을 전시하듯 주차가 돼 있어 불편.

대학당국은 주차장을 확장이 여의치 않으면 주변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도 설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시끌벅적한 도서관 ‘어찌하리오’

○… 학자지절 중앙도서관

정숙해야 할 중앙도서관 내에서 학자지절한 소리가 떠나지 않아 눈살.

소리의 근원은 컴퓨터가 있는 1층 정보검색실로 로비와 연결돼 있고 오픈된 공간이라 정숙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잊은 모양.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정보검색실에서 자료를 찾는 학생들은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

아무리 오픈돼 있어도 정보검색실이 도서관 내부인만큼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다는 휴게실에서 해야 할 듯.

○… 간호학과는 떠돌이?

간호학과 정원이 3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문제.

현재 간호학과는 학년별로 1개의 강의실만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대와 인문대 1호관에 남는 공간을 강의실과 실습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푸념.

공간확보도 없이 정원만 늘린 결과 의전원, 자연대, 인문대 3개 대학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불멘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하소연.

애꿎은 생명앗은 위험천만 제초제

사료와 빵에 농약 묻혀 방치… 애완견 숨져

대학 캠퍼스를 산책하던 애완견이 제초제를 먹고 마비증상을 일으키며 죽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1월 캠퍼스 내 까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사료와 빵에 묻혀 놓았던 제초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라캠퍼스는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해 여러 동물들이 산 속에서 내려오곤 한다. 이런 과정에서 야생동물과 고양이, 까치와 까마귀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경관리 직원은 까치가 겨울동안 애벌레와 진뒀물을 먹기 위해 캠퍼스 내 잔디의 뿌리를 파먹어 버리는 것을 막고자 사료와 빵에 제초제를 뿌렸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약 4시간 동안

안 제초제가 묻은 빵과 과자를 뿌려 놓고 경과를 지켜봤으나, 별 효과를 내지 않아 다시 회수했다고 전했다. 현재 까치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교직원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재신씨는 애완견과 캠퍼스를 산책 한 뒤 애완견이 죽는 불상사를 겪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수의사는 단순히 음식을 잘못 먹어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재신 씨는 “캠퍼스에 눈을 보고 좋아하는 강아지를 자유롭게 놀게 하기 위해 잠시 풀어 놓았었다”며 “그 순간 강아지가 벤치 주변에서 과자를 먹더니, 산책을 하고 돌

아와서는 몸에 마비를 일으키며 죽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까치를 잡으려는 시도가 후에는 더 많은 문제를 파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학의 캠퍼스 내에는 여러 야생보호동물들이 출몰하기도 하며, 휴일에는 어린 아이를 데려오는 가족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경관리 직원은 “지난 1월 일시적으로 시험삼아 까치만을 잡기 위해 시도한 것을 까마귀나 까치가 옮겨가 애완견이 먹게 된 것 같다”며 “애완견이 죽은 것에 크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며, 다시는 이런 시험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박종건 기자

한국마사회와 제주마산업 육성 협약

제주마산업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

제주대학교와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는 지난 8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마(馬)산업 육성·발전 연구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향진 총장과 한국마사회 제

주경마본부 남병문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마(馬)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마필생산·승마기술 등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는 ▲마필생산에 필요한 씨수마 교배 ▲인공 수정용 정자 ▲승용 실습마 및 연구용 마필을 무상지원 한다. 이외에도 ▲위탁육(아카데미) ▲경주마 목장 시설 개발 ▲관련학과 강의요원을 제주대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허향진 총장은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 남병문 본부장을 제주대학교 초빙교수(마필산업활용분야)로 추대했다.

제30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언론·출판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56년을 맞이하여 제30회 백록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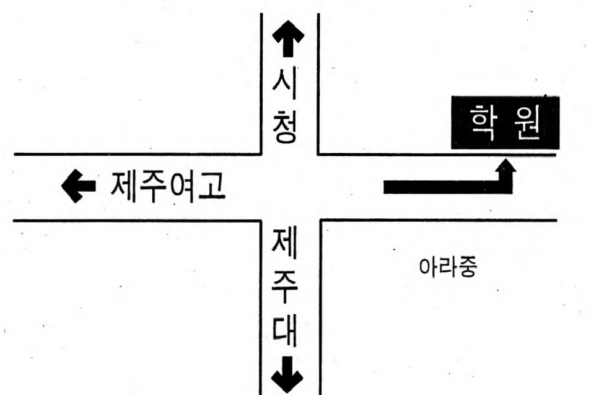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또는 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0년 5월 17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출판센터 행정실 (취업전력본부 3층)
※백록문학상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물을 동시에 제출
5. 발표 : 제주대신문 835호(2010년 6월 9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각 부문 당선작(50만원), 가작(30만원)

언론·출판센터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학생좌담 / 우리가 바라는 특별도지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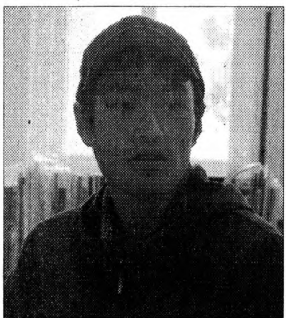
“공허한 일자리 공약은 싫다”... “우리가 바라는 건 현장적 소통과 실질적 대안”

■ 사회
강보배(정치외교 2) 기자

■ 참여 학생
강형철 (수학교육 4)
송창준 (정의 2)
고대웅 (사회 2)
오미란 (언론홍보 2)

지난 9일 제주대신문사에서는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들이 모여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학생 청년을 위한 공약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사회: 학생들이 선거에 무관심한 이유는?



고대웅(사회 2) 학생

“대학생들의 정치 무관심 갈수록 깊어져”

대웅: 학생들이 선거에 무관심한 이유는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정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의 초·중·고 교육과정은 편협하게 대학 입시 쪽으로만 치우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둘 수가 없는 상태다. 이러니, ‘학생들은 자연히 사회문제와 정치에 대해 관심을 잃게 된다고 생각한다.’

형철: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솔직히 정보를 얻을 기회는 많다. 관심을 가지면 인터넷도 있고 신문도 있다. 특히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의식적으로 없애려는 사람도 있다. 가끔 연예인이나 일상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암묵적으로 그런 이야

기를 왜 하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또 학내에서조차 정치와 관련한 것들은 기피하는 것 같다.

미란: 학생들이 정치에 왜 무관심한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이유는 정치권에서 학생들의 표를 원하면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층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것도 아니다. 일자리 1만, 2만 정도를 창출하겠다는 식으로 나열해 주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학생들은 투표할 동기부여를 받지 못한다.

사회: 그렇다면, 학생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창준: 후보자들이 학생들의 미시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줘야 한다. 대학 생활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대학생들을 위한 공약을 명확히 만들어 가야 한다. 그냥 대충 표만 얻으려는 공약은 이제 학생들의 주목을 끌 수 없다.

미란: 학내 구성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 돼야 한다. 학생회가 토론문화 활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 단과대 별로 대의원의장도 뽑혔으니 회의 같은 것들도 많이 열어야 한다. 앞으로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자주 열었으면 좋겠다.

대웅: 현 정치권의 반성도 있어야 한다. 지난번 대선에서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 등록금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공약인 반값등록금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는 정치권에서 학생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알게 하는 대목이다.

형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기회를 학교에서 만들어 줘야겠다. 현재 도지사후보들이 학교를 찾아와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 해 주기도 하고, 총학생회와 연계해 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거나 토론회를 벌이는 시간도 주어져야 한다. 도지사들이 대학을 찾아와 대학생과 대학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여는 것 같다.

사회: 각자가 생각하는 도지사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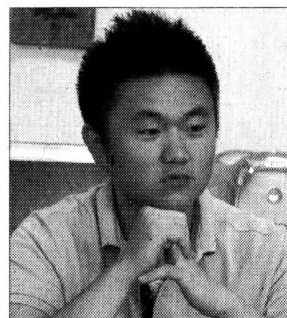


오미란(언론홍보 2) 학생

“도민과 소통하는 특별도지사 필요”

미란: 도지사가 도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지사는 현재 제주에서 풀어야 할 많은 갈등요소를 확실히 이해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제주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통해 제주도민들과 진정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대웅: 정책능력 이외에도 창의력을 중요시 여기는 도지사가 있었으면 한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식수관광자원을 개발한다. 이런 정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상에서 시작한 것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면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도 간과하기 쉬울 수 있다.



송창준(정치외교 2) 학생

“깨끗한 사람, 소신있는 일꾼 뽑아야”

창준: 도지사는 높은 직위인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를 대표해 일을 할 사람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것을 너무나 많이 봐 왔다. 앞으로 도지사는 청렴하고 명백하게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신념있게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

사회: 지역사회에 대학생이 겪는 문제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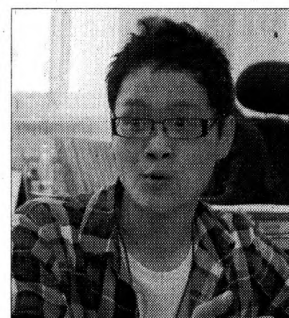
미란: 제주대는 타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낮은 편이지만 등록금과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주의 지역적 특성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창준: 제주에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여러 민간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제주도 자체에서 살기 좋은 직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환경적인 면은 최고다. 기반 여건이 잘 갖춰지고 홍보가 조금만 더 된다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 생각한다.

미란: 청년들을 제주로 끌어들이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업과 대학, 지역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강형철(수학교육 4) 학생

“도민 의견 수렴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형철: 창업이나 벤처 사업에 대한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을 본적이 있었는데, 타 지역에서는 학생이다. 그러나 그 학생조차도 제주에서 창업을 준비하긴 어려웠다. 지원하는 부분도 없었고, 혼자서 하다가 실패할 경우 부담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미란: 동의한다. 도내에 벤처 마루도 생기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갑자기 차근차근 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창업 지원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형철: 관측은 것 같다. 취업박람회나 창업박람회 같은 행사를 열어 학생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자체에서 학내 취업과 창업 등 청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에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생각도 든다.

창준: 이는 정보문제라고 생각한다. 서울권에 있는 친구들은 할일이 엄청 많

다고 한다. 그렇지만 제주의 경우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일자리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러다 보니, 제주의 인재들이 제주에 머물러 하기 보다는 육지 혹은 외국으로 떠나려 한다.

미란: 지역 고용활당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 지역 안에서 우수한 인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제주에 맞는 기업이 들어오거나 창업을 한다면 제주도민에 대한 인력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 본다.

대웅: 아는 사람 중에는 새벽알바를 하며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매 학기마다 힘들어한다. 지금은 학자금 대출도 이자가 늘었다고 한다. 그 학생은 학자금대출을 받아 부모님 눈치도 심하게 본다. 이 학생을 보면 어린 나이에 필요 이상의 고생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사회에 이런 사람이 한 두명 아닌 것이 사실이다. 국가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으로 도와 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란: 취업장에서 도지사들의 관심이 많았으면 한다. 현재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책이고 내 놓은 것이 일시적 효과만을 노린 행정인턴제와 같은 정책뿐이다. 이런 근시적 정책이 아닌, 더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 도지사 후보에게 바라는 점은?

미란: 제주가 준비하는 많은 국제적 사업에 맞춰 제주의 청년들을 글로벌 세대에 맞는 인재로 양성시킬 방안을 마련해 줄길 바란다.

창준: 도지사후보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보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줬으면 한다.

대웅: 젊은 층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공약도 많이 있었으면 한다. 한 쪽에만 치우친 정책이 아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으로 청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형철: 이 자리에서 다양한 분들 만나 보니 다 특색이 있다.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들은 이와 같이 대화를 통해 더욱 발전되는 것 같다. 도지사가 되실 분들도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줬으면 한다.

정리=강진기 기자

2009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현황

1. 세입·세출총괄

■ 세입

예산액 (A)	예산결정 후 증감액 (B,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C=A+B)	결산액 (D)	세입차입액 (E=D-C)	비고
59,808,884,000	919,466,100	60,728,350,100	62,418,213,660	22,418,213,660	

■ 세출

예산액 (A)	예산결정 후 증감액 (B,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집행잔액 (E=D-C)	집행잔액 내역
59,808,884,000	919,466,100	60,728,350,100	55,589,518,544	5,138,831,556	*국고채입 254,084,419원 *국고채입 1,034,071,219원 *국고채입 1,034,071,219원

■ 잉여금현황

세계잉여금 (A)			사과이월 (B)	명시이월 (C)	잉여금 총액 (D=A+B+C)	비고
세입 (a)	세출 (b)	소계 (c=a+b)				
1,689,863,560	3,230,691,931	4,920,555,491	254,064,410	1,654,075,215	6,828,695,116	

2. 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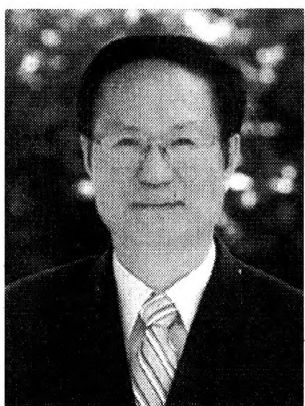
예산과목	예산액 (A)	예산결정 후 증감액 (B,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C=A+B)	결산액 (D)	세계잉여금 (E=D-C)	주요증감내역
회 비	33,940,375,000		33,940,375,000	35,118,085,590	1,177,710,590	
이월금	5,261,834,000	919,466,100	6,181,300,100	6,181,300,570	470	
보조금	15,510,975,000		15,510,975,000	15,506,541,280	-4,433,720	● 정부보조금 2,400,000원 ● 지방보조금 2,400,000원
감수입	875,000,000		875,000,000	1,283,118,630	408,118,630	
소계	55,588,184,000	919,466,100	56,507,650,100	58,083,046,070	1,581,395,970	
수입대체금	4,220,700,000		4,220,700,000	4,329,167,590	108,467,590	
합계	59,808,884,000	919,466,100	60,728,350,100	62,418,213,660	1,689,863,560	

3. 세출

과목	예산액 (A)	예산결정 후 증감액 (B,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C=A+B)	결산액 (D)	지출잔액 (E=D-C)	잔액잔액 (F=D-E)
회 비	33,940,375,000		33,940,375,000	35,118,085,590	1,177,710,590	
이월금	5,261,834,000	919,466,100	6,181,300,100	6,181,300,570	470	
보조금	15,510,975,000		15,510,975,000	15,506,541,280	-4,433,720	
감수입	875,000,000		875,000,000	1,283,118,630	408,118,630	
소계	55,588,184,000	919,466,100	56,507,650,100	58,083,046,070	1,581,395,970	
수입대체금	4,220,700,000		4,220,700,000	4,329,167,590	108,467,590	
합계	59,808,884,000	919,466,100	60,728,350,100	62,418,213,660	1,689,863,560	

1980년 광주민주항쟁: 의의와 과제

아직 아물지 않은 5·18 상처... 민주화·국민통합 '현재진행형'



양길현(연세교육과 교수)

I. 광주민주항쟁의 의의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의해 박정희대통령이 피살되는 충격은, 향후 정국에 대한 불안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라는 이중성을 보였다. 유신체제의 붕괴가 권력 핵심 내부에서의 갈등으로부터 온 것인 만큼이나, 향후 누가 이러한 권력공백을 메워 나갈 것인가의 선제권은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가 장악하였다.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 피살 수사관한을 이용한 합수부의 전두환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함으로써 전두환의 1단계 하극상이 완료되었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정치적으로는 12·12의 1단계 쿠데타와 5·17의 2단계 쿠데타 사이의 조정기에 해당한다. 이는 민주 정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열원과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어디로 기울어지느냐의 과도적 국면임을 뜻한다. 이러한 과도적 국면에서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은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맞서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했던 아래부터의 민주화운동이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장기 여정에서 볼 때 광주민주항쟁은 즉각적인 민주정부 수립에는 실패했지만 광주화살의 무모함을 바탕으로 한 한국 국민들의 지속적인 반전투한 민주투쟁의 결과 마침내 1987년 민주정부의 등장을 가져오는 데 공헌을 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자리하는 데 손색이 없다.

II. 광주민주항쟁의 배경과 과정: 5·17과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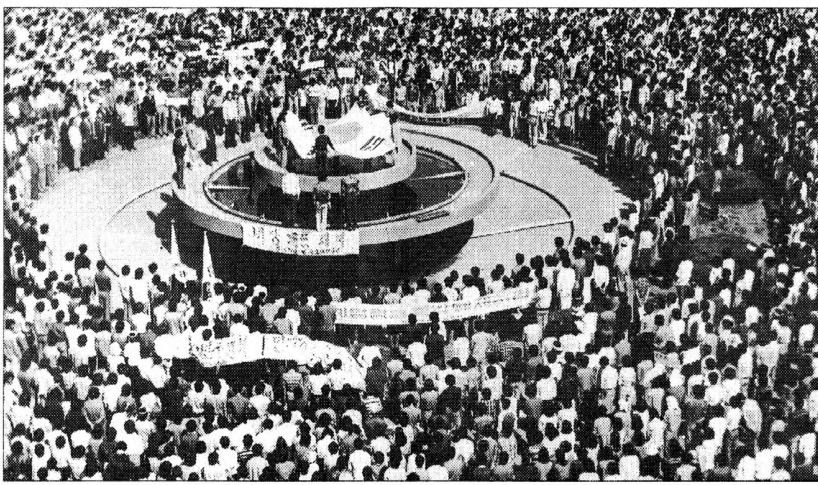
1980년 봄 비상계엄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의 정치적 영향력이 교차·대두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선거 국면으로 나아가는 정

치적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군부의 권력 장악 움직임도 물밑으로 차근 차근 진행되었는데, 1980년 4월 14일 전두환 합수부장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게 되면서 명목상의 최규하 과도정부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임을 대내외에 공식화한 것이 그 대표적이다. 이렇게 친여신당설과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이 제기되는 '안개정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1980년 5월 학생들의 반군부 가두시위는 점점 더 열기를 더해 갔고, 이에 부응하여 정치권도 계엄해제 촉구와 유신헌법 개헌에 합의함으로써 신군부의 정권장악 의도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학생들과 정치권으로부터의 견제에 직면하여 신군부에게는 무언가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마침 1980년을 전후해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가 하면 박정희의 갑작스런 피살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위기의식도 조성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력과 언론통제를 확보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포고령 10호를 통해 국회와 대학 폐쇄, 모든 정치활동 금지, 언론검열 강화, 파업금지 등을 발표하였다. 포고령 발표의 이유는 학생들의 가두시위로 인해 아끼된 혼란을 막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곧 신군부의 권력 장악 의지와 기획이 발동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5·17 계엄확대는 유력한 야당정치인인 김대중을 체포하고 김영삼을 가택연금 시킴으로써 사실상 12·12 하극상에 이어 군부의 권력장악 의지가 개입된 또 한 번의 쿠데타였다.

5·17 계엄확대에 항의하는 학생 및 시민들의 저항이 광주에서 폭발하게 된 배경에는 호남지역의 소외가 작용하였다. 광주로 대표되는 호남은 '지역의 계급화'가 논의될 정도로 박정희 정부의 편향적인 지역개발정책과 인사정책으로 인해 소외감과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소외된 호남의 유력한 정치지도자인 김대중을 정부전복 기도 혐의로 신군부가 체포하자, 이에 반발하는 광주시민의 시위는 자연스런 것이었다. 그러나 광주시민의 시위에 대해 신군부가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살상과 진압으로 대응하면서 초기의 반정부 평화적 시위는 전투적이고 생사를 건 자구적 투쟁으로 바뀌어 나갔다.

전국이 계엄령 하에 놓여 있어서 언론이 통제되고 미국마저 애매한 태도로 방관하던 5월 18일 이후의 상황에서 뚜렷한 지도력이나 조직이 없이 자발발생적으로 등장한 방어진인 '시민군'은 고립되었다.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부재한 가운데 자기 보호를 위해 무장했던 광주 시민군은 5월 18일 공수부대 투입 이후 27일 계엄군의



사진제공=5.18기념재단

전남도청 무력진압으로 이어지는 10일 간의 비극에서 철저히 희생되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공수부대는 마치 외국인 용병처럼 생명존중이라든가 관용과는 거리가 먼 태도로 학살에 임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일여군사정부'를 뜻하는 전두환 정부는 그 집권을 위해 수많은 광주 시민들을 무고하게 희생시켰다는 원죄에서 한 시도 벗어나지 못하는 정당성 결여에 시달렸다.

III. 광주민주항쟁의 과제: 민주적 변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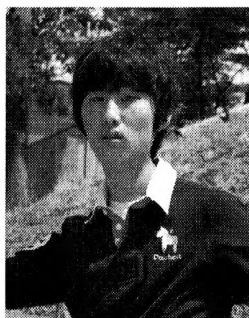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에서 국가폭력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부도덕성을 면치 못하였다. 광주민주항쟁 동안 군부의 정치적 탄압이 폭력적인 만큼이나 저항의 강도도 충격전으로 전개될 정도로 폭력적 양상을 띠었고 이에 따른 신군부의 대응도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등 폭력의 극치를 보였다. 종국적으로 광주 시민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로 마무리되면서 1980년대 사회변혁운동의 추동자로서 광주민주항쟁은 전두환 정부의 부도덕성과 폭력성을 전면에 부각시켰다. 1980년

대 체제변혁운동의 전투성은 광주민주항쟁이 좌절된 데에 따른 허탈과 분노를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향후 새로운 다짐과 강고한 투쟁방식을 요청하는 민중적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의 실패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1980년대 중반 한국경제의 순조로에 영향을 받으면서, 광주민주항쟁은 사회변혁을 의도하는 시민 혁명이기보다는 민주화운동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2010년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광주민주항쟁은 반복적 민주와 함께 반신자유주의의 복지로 나아가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광주민주항쟁은 기본적으로 '계엄철폐, 전두환 사임, 김대중 석방'을 요구한 국내적 사안이었다. 그러나 1980년 5월 20일 신군부가 20사단의 투입을 한미연합사에 요청했을 때 미국이 이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광주화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에 따라 부산 미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부터 시작하여 2002년 12월 의정부 여중생주도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광주민주항쟁에서 제기된 바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의 의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제기되고 있다.

팔막 인터뷰 - 5월, 고마움을 전할 당신에게

"아버지와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지금 아버지가 육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얼굴을 자주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전화로라도 항상 나를 격려해주고 믿어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연초에 약속한 계획들이 있는데 아직 잘 못 지키고 있다. 앞으로는 마음을 다잡고 약속들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사학파 1학년 김태욱

"자랑스러운 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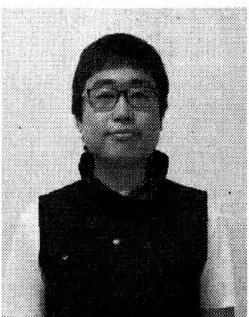
이제까지 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믿을 가져주시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는 낮간지러워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꼭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어국문학과 1학년 김연선

"이해심 많은 부모님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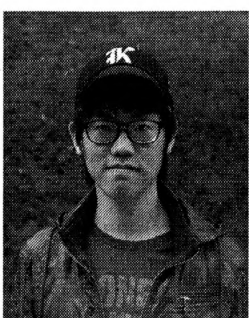
대학에 들어와서 학과 행사나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집에 늦게 들어가곤 했다. 그런데도 부모님이 별 말 없이 이해해줘서 고맙다. 내가 조금 무뎡뎡해서 표현은 잘 못 하지만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조차 하는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관광경영학과 1학년 이상희

"오영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가족 못지않게 소중한 답십선생님이 있다. 제일고 3학년 시절 많은 교훈과 소중한 지식들을 가르쳐 주신 오영호 선생님이다. 오영호 선생님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선생님께 배운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 해양산업학부 2학년 김동희

"선배님 조언 큰 힘 됐습니다"



밴드 동아리에 다니고 있는데 동아리 선배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동아리에서 테스트가 있어 열심히 연습했다. 그런데 막상 테스트에서 긴장을 해 테스트를 망쳤다. 낙담하고 있을 때 선배가 다음부터 잘 하면 된다며 격려해주셨다. 그 격려 때문에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경영정보학과 2학년 김진홍

2010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

■ 세입예산

과목	2010학년도 예산액(A)		2009학년도 예산액(B)		증감액(C=A-B)	증감률(C/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회비수입	35,195,224	72.5%	33,940,375	71.7%	1,254,849	3.7%
이월금	6,574,630	13.5%	5,261,834	11.1%	1,312,796	24.9%
보조금	1,836,806	3.8%	3,149,132	6.7%	-1,312,326	-41.7%
잡수입	828,000	1.7%	875,000	1.8%	-47,000	-5.4%
소계	44,434,660	91.5%	43,226,341	91.3%	1,208,319	2.8%
수입대체경비	4,141,627	8.5%	4,123,551	8.7%	18,076	0.4%
합계	48,576,287	100.0%	47,349,892	100.0%	1,226,395	2.6%

■ 세출예산

과목	2010학년도 예산액(A)		2009학년도 예산액(B)		증감액(C=A-B)	증감률(C/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기준경비	24,985,157	51.4%	23,907,441	50.5%	1,077,716	4.5%
운영비	6,311,034	13.0%	5,814,295	12.3%	496,739	8.5%
사업비	12,650,870	26.0%	13,053,541	27.6%	-402,671	-3.1%
과년도지출	1	0.0%	1	0.0%	0	0.0%
잡지출	1	0.0%	1	0.0%	0	0.0%
예비비	200,000	0.4%	200,000	0.4%	0	0.0%
소계	44,147,063	90.9%	42,975,279	90.8%	1,171,784	2.7%
수입대체경비	4,429,224	9.1%	4,374,613	9.2%	54,611	0.0%
합계	48,576,287	100.0%	47,349,892	100.0%	1,226,39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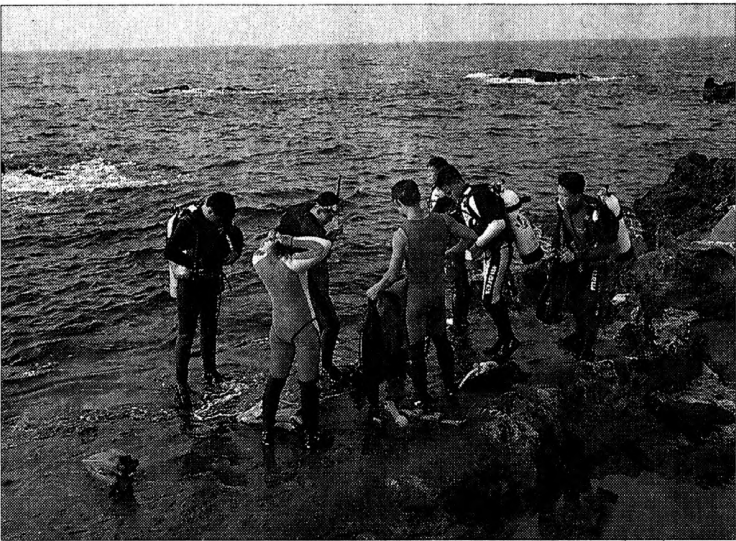
■ 과목별 세출예산 총괄표

과목	2010학년도 예산액(A)		2009학년도 예산액(B)		증감액(C=A-B)	증감률(C/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계	48,576,287	100%	47,349,892	100%	1,226,395	2.6%
인건비	17,384,928	35.8%	16,799,467	35.5%	585,461	3.5%
101 기본급	3,799,002	7.8%	3,557,488	7.5%	241,514	6.8%
01 봉급	3,267,632	6.7%	3,042,240	6.4%	225,392	7.4%
02 상여금	226,778	0.5%	225,645	0.5%	1,131	0.5%
03 퇴직금	185,073	0.4%	177,848	0.4%	7,224	4.0%
04 초과근로수당	119,521	0.2%	111,743	0.2%	7,778	6.9%
102 기타수당	1,567,991	3.2%	1,126,330	2.4%	441,661	39.2%
103 월급합계	169,830	0.3%	139,057	0.3%	30,773	22.1%
104 연구보조비	11,848,505	24.4%	11,976,812	25.3%	-128,307	-1.1%
01 장학연구비	3,421,012	7.0%	3,402,978	7.2%	18,034	0.5%
02 행정관리비	739,430	1.5%	739,682	1.6%	-252	-0.0%
03 연구자료비	2,266,984	4.7%	2,249,923	4.8%	17,061	0.8%
04 직무개발비	618,220	1.3%	620,470	1.3%	-2,250	-0.4%
05 교육연구보조비	1,836,806	3.8%	1,999,132	4.2%	-162,326	-8.1%
06 교육개발연구비	2,083,024	4.3%	2,080,756	4.4%	2,268	0.1%
07 교육지원활동비	895,029	1.8%	893,664	1.9%	1,365	0.2%
연구비	10,175,922	20.9%	9,706,000	20.5%	469,922	4.8%
201 학교운영비	7,219,725	14.9%	6,629,422	14.0%	590,303	8.9%
01 일반수용비	1,418,775	2.9%	1,284,506	2.7%	134,269	10.4%
02 공공요금및제세	1,578,493	3.2%	1,530,802	3.2%	47,691	3.1%
03 피복비	10,250	0.0%	4,750	0.0%	5,500	55.0%
04 특근대식비	23,867	0.0%	25,014	0.1%	-1,147	-4.6%
06 운영수당	85,305	0.2%	87,425	0.2%	-2,120	-2.4%
07 임차료	181,751	0.4%	202,301	0.4%	-20,550	-10.2%
08 열매비	437,840	0.9%	537,940	1.1%	-100,100	-18.6%
09 시설장비유지비	2,942,241	6.1%	2,454,563	5.2%	487,678	19.9%
10 차량선박비	24,218	0.0%	35,098	0.1%	-10,880	-31.0%
11 재료비	509,985	1.0%	467,023	1.0%	42,962	9.2%
202 재	769,819	1.6%	736,039	1.6%	33,780	4.6%
01 국내여비	735,457	1.5%	657,593	1.4%	77,864	11.8%
02 국외여비	34,362	0.1%	78,446	0.2%	-44,084	-56.2%
203 교육지원비	108,000	0.2%	114,800	0.2%	-6,800	-6.0%
204 일반추진비	612,501	1.3%	728,755	1.5%	-116,254	-16.0%
205 불리후생비	743,945	1.5%	733,681	1.5%	10,264	1.4%
206 연구개발비	171,832	0.4%	763,323	1.6%	-591,491	-77.5%
경상	12,506,901	25.7%	12,369,278	26.1%	137,623	1.1%
301 보상금	4,591,145	9.5%	4,606,941	9.7%	-15,796	-0.3%
302 퇴직금	669,356	1.4%	488,914	1.0%	180,442	36.9%
303 배상금	100,000	0.2%	100,000	0.2%	0	0.0%
305 이경상보조	7,145,400	14.7%	7,171,423	15.1%	-26,023	-0.4%
자본지출	3,879,310	8.0%	3,900,532	8.2%	-21,222	-0.5%

과목	2010학년도 예산액(A)		2009학년도 예산액(B)		증감액(C=A-B)	증감률(C/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403 01 통지매입비	0.0%	0.0%	0.0%	0.0%	0	0
404 01 시설비	1,285,583	2.6%	1,300,346	2.7%	-14,763	-1.1%
406 01 시설부대비	148,000	0.3%	207,500	0.4%	-59,500	-28.7%
407 01 자산취득비	2,445,727	5.0%	912,436	1.9%	1,533,291	168.0%
408 01 상환금	0.0%	0.0%	1,480,250	3.1%	-1,480,250	-100.0%
과년도지출	1	0.0%	1	0.0%	0	0
잡지출	1	0.0%	1	0.0%	0	0
예비비	200,000	0.4%	200,000	0.4%	0	0
수입대체경비	4,429,224	9.1%	4,374,613	9.2%	54,611	1.3%
인건비	17,384,928	35.8%	16,799,467	35.5%	585,461	3.5%
101 기본급	3,799,002	7.8%	3,557,488	7.5%	241,514	6.8%
01 봉급	3,267,632	6.7%	3,042,240	6.4%	225,392	7.4%
02 상여금	226,778	0.5%	225,645	0.5%	1,131	0.5%
03 퇴직금	185,073	0.4%	177,848	0.4%	7,224	4.0%
04 초과근로수당	119,521	0.2%	111,743	0.2%	7,778	6.9%
102 기타수당	1,567,991	3.2%	1,126,330	2.4%	441,661	39.2%
103 월급합계	169,830	0.3%	139,057	0.3%	30,773	22.1%
104 연구보조비	11,848,505	24.4%	11,976,812	25.3%	-128,307	-1.1%
01 장학연구비	3,421,012	7.0%	3,402,978	7.2%	18,034	0.5%
02 행정관리비	739,430	1.5%	739,682	1.6%	-252	-0.0%
03 연구자료비	2,266,984	4.7%	2,249,923	4.8%	17,061	0.8%
04 직무개발비	618,220	1.3%	620,470	1.3%	-2,250	-0.4%
05 교육연구보조비	1,836,806	3.8%	1,999,132	4.2%	-162,326	-8.1%
06 교육개발연구비	2,083,024	4.3%	2,080,756	4.4%	2,268	0.1%
07 교육지원활동비	895,029	1.8%	893,664	1.9%	1,365	0.2%
연구비	10,175,922	20.9%	9,706,000	20.5%	469,922	4.8%
201 학교운영비	7,219,725	14.9%	6,629,422	14.0%	590,303	8.9%
01 일반수용비	1,418,775	2.9%	1,284,506	2.7%	134,269	10.4%
02 공공요금및제세	1,578,493	3.2%	1,530,802	3.2%	47,691	3.1%
03 피복비	10,250	0.0%	4,750	0.0%	5,500	55.0%
04 특근대식비	23,867	0.0%	25,014	0.1%	-1,147	-4.6%
06 운영수당	85,305	0.2%	87,425	0.2%	-2,120	-2.4%
07 임차료	181,751	0.4%	202,301	0.4%	-20,550	-10.2%
08 열매비	437,840	0.9%	537,940	1.1%	-100,100	-18.6%
09 시설장비유지비	2,942,241	6.1%	2,454,563	5.2%	487,678	19.9%
10 차량선박비	24,218	0.0%	35,098	0.1%	-10,880	-31.0%
11 재료비	509,985	1.0%	467,023	1.0%	42,962	9.2%
202 재	769,819	1.6%	736,039	1.6%	33,780	4.6%

캠퍼스 新풍속도

건강에 패션까지... 이색강좌 인기 튀는 교양강좌에 학생들 호응도 높아



하계방학에 개설되는 스킨스쿠버 강좌에 우리대학 학생은 물론 학점교류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새학기 들어 푹푹 튀는 대학생들을 위한 이색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고방식의 변화와 사이버 영상 등에 익숙한 신입생을 겨냥한 교양 강좌가 속속 개설되고 있는 것. 이들의 취향과 기호에 맞추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낮은 교양 강좌가 외면당할 처지여서 이색강좌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 강좌가 시작됐거나, 새로 신설된 '허브와 인간생활', '말과 웰빙 여가생활', '현대인의 식생활', '골프' 등 건강관련 강좌와 창업강좌에 수강신청이 몰려 최근의 세대 변화를 읽게 한다. 또 결혼과 가족, 취업준비 강좌 등 실생활과 취업에 밀착된 강좌들에는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색 강좌도 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돌아보는 '오르트리킹'은 학생들이 직접 오름을 올라 건강과 자연의 소중함을 동시에 배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는 출범한지 4년째 되는 제주만의 특별한 실험을 바로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개설됐다. 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라산의 동식물' '제주사회의 이해' '제주4·3의 이해' '바다의 이해' 등의 강좌가 개설됐다.

아울러 창업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의 생각을 읽어 '발명과 창업' '발명과 특허' 'e-비즈니스 기술' 'e-마케팅' 등의 과목을 개설했다. 경영학과 등 경상대학에서 각각 개

설한 이들 교양강좌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가르치고 있다.

하계 계절학기는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등 제주 지역 특성을 살린 과목이 개설돼 있어 우리대학 학생은 물론 학점교류 대학생들의 수강하고 있다. 성과 관련된 강좌도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제주대가 개설한 '성과학' 등은 100~200명의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해 강의실을 달구고 있다.

또 교육대학 초등교육과에서 개설한 '결혼과 가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캠퍼스커플의 건전한 교제를 유도하는 한편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결혼생활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당사자들 스스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정치·경제 등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만 머물던 기존의 강좌들에서 벗어나 '북한 및 통일론'에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많아진 것은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학교에서 이색강좌를 만들어주는 것도 최근의 경향이다. 다양한 지식을 얻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가의 이색강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학사관리과 관계자는 "신입생의 취향과 요구에 맞춰 이제 대학의 교양강좌도 새로운 형식과 실용적 내용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용복 대기자

새롭게 탄생한 취업전략본부를 가다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다양한 서비스 '눈에 띄네'

심층적 취업지원 강화해 취업률 70% 목표

최근 한 전문 구직 사이트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대학생이 생각하는 최고의 호도는 '하루빨리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듯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학교도 이에 맞춰 직업능력개발원이 취업전략본부(본부장 박경린 교수, 이하 취업본부)로 확대 개편됐다. 새롭게 선보일 취업전략본부는 어떤 업무를 맡게 될까.

먼저 취업전략본부 조직이 좀 더 세밀히 나뉜다. 기존에는 하나의 센터로 운영됐지만 취업본부로 개편되며 취업지원팀과 취업기획·평가팀,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3개의 세부조직으로 나뉜다.

취업지원팀은 기존의 직업능력개발원이 해왔던 업무들을 이어간다. 취업기획·평가팀은 새로운 취업프로그램들을 발굴해 운영한다. 또한 취업전략본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프로그램들을 평가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수정·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 상대적으로 취업시장에서 소외받는 여성들이 스스로 해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커리어개발센터가 9월 새롭게 개소할 예정이다.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는 여대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본부는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관리하기 위해 취업종합정보시스템과 job

cafe, 학생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종합정보시스템은 취업관련 전문 회사와 연계해 다양한 채용정보와 취업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jobcafe는 취업본부 내에 취업에 관련한 최신 서적과 기업 홍보자료, 기업연감 등을 배치해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학생 경력관리 프로그램은 통합행정시스템인 하영Dreamy를 통해 학생들의 학점, 외국어성적, 전공자격증, 정보화능력, 봉사활동, 수상실적 등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경력관리를 점수화해 높은 점수를 받은 50명 내외의 학생을 선정해 격려금을 지급한다.

취업본부는 학생들에 진로선택이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취업관련 교과목들을 운영중이다. 먼저 1~2학년들이 진로설계나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와 직업의 세계 과목과 3~4학년들이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취업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또 공무원 준비생을 위해 공무원 시험의 공통과목 5개에 대한 강좌를 개설해 진행한다. 이외에도 초·중·고등 임용고시 준비생들을 위해 임용고시 공통과목에 대해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취업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2,000여개의 기업체 면접 질문정보가 입력돼있는 셀프면접기가 설치돼 학생들이



취업전략본부가 확대 개편되면서 취업지원팀·평가팀,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3개의 세부조직으로 구성된다.

시뮬레이션 면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이 시뮬레이션 면접 후 전문 면접 컨설턴트의 평가를 요청하면 지속적인 면접 컨설팅도 지원해준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을 자신감 있게 치를 수 있도록 이력서와 모의 면접 대회 등도 운영한다.

또 학생들이 현장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내 인턴십과 국제적 마인드,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과(전공)별로 동문을 초청해 선배들의 사회 경험담과 취업정보를 전해들을 수 있는 선배 만남의 날 행사를 지원한다. 취업본부는 취업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 프로그램은 크게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로 구성된다. 개인상담은 취업전략본부에 방문 신청을 하면 대학 생활을 겪으면서 겪는 성격,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등에 문제 등을 상담전문 카운슬러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집단상담은 선배나 친구간의 서로 상담자가 되는 동료상담자(P.C.P)와 상담원리와 기법 등을 배우는 학생동료상담자 리더전문가 훈련과정으로 나뉜다. 심리검사는 전문적인 검사와 해석 상담을 통해 자신의 직업적인 적성이나 성격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다. 검사의 종류로는 자신의 직업적인 적성을 검사해주는 'Holland적성탐색검사', 자신의 성격유형을 검사하는 MBTI성격유형검사 등이 있다.

강보배 기자

제주대 인재연감을 아시나요?

'학생별 특기' 기업에 제공... 지난해 76% 취업 성공

취업전략본부(본부장 박경린 교수)가 지난해 좋은 성적을 냈던 인재연감에 들어갈 학생들을 모집한다.

지난해 인재연감에 등록된 62명의 졸업자 중 47명이 취업해 75.8%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대우증권, (주)대상, 뉴시스, NH투자증권, LG이노텍 등 유명기업이나 도외지역 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상당수로 양적 취업뿐만 아니라 질적 취업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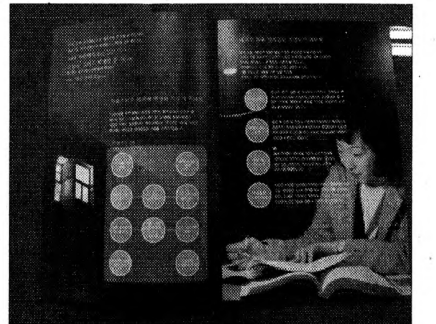
취업전략본부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로 인재연감이 단순히

기업에 좋은 인재들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집중지도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취업 집중지도 프로그램은 △단계-취업 아카데미 교육(집중강좌) △2단계-전문가와 1:1 컨설팅 및 개인별 취업역량진단 검사 △3단계-온라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4단계-기업체 추천 △5단계-개인별 불합격 원인 분석 맞춤형 취업 추천 재일시 △인재연감 및 취업성공 사례집 발간의 총 6단계로 구성된다.

모집은 2010년 8월,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6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이메일(cncareer@jeju.ac.kr)이나 방문접수를 통해 이뤄진다. 접수가 완료된 후 100~15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을 높이고 주요 우수 기업과 도외 지역에 대한 취업확대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선발된 사람들에게는 7월 5일부터 약 8개월 간 집중 취업지도가 진행된다.



2010년도 제주대학교 인재연감.

취업전략본부 이창수씨는 "이번 인재연감은 제2회 제주상공인대회에 맞춰서 발간할 예정"이라며 "제주상공인들에게 인재연감을 통해 제주대 인재들이 취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포토 에세이



정문에서 조금만 오르면 나오는 옴팡밭 열 가로수길입니다. 이 소담스런 길이 지금은 봄에서 여름으로 향하는 길목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당신과 함께 거닐 사람은 누구인가요?

김신철(언론홍보 4)

금주의 행사

▲학과별 행사

△ 경영정보학과

행사명 : 혼디제
일정 : 5.21~22
장소 : 안덕면 신신휴양펜션

△ 언론홍보학과

행사명 : 일일호프
일정 : 5.21 오후 7시~
장소 : 시청 골뱅이

△ 행정학과

행사명 : 행정학과 동문 체육대회
일정 : 5.15 오전 9시~오후 4시
장소 : 대운동장

수의학과

행사명 : 수의학도의 밤
일정 : 5.14 오후 6시~11시
장소 : 대운동장

△ 생활환경복지학부

행사명 : 선배대 만남
일정 : 5.20 오후 2시
장소 : 자연대 1호관 세미나실
△의류학과

행사명 : 감성학회
일시 : 5.14~15 오후 2시~
장소 : 신라호텔

△ 기계공학전공

행사명 : 스승의날 행사
일시 : 5.14
장소 : 공과대 4호관 D012 강의실

△ 음악학과

행사명 : 정기연주회
일시 : 5.18 오후 7시 30분~
장소 : 아라뮤즈홀

△ 식물자원환경전공

행사명 : 스승의날 행사
일시 : 5.14 오전 10시~
장소 : 생명대 1호관 5331 강의실

△ 원예환경전공

행사명 : 스승의날 행사
일시 : 5.14 오전 10시~
장소 : 생명대 2호관 4119 강의실

△ 윤리교육과

행사명 : 일일호프
일시 : 5.21 오후 5시~새벽 2시
장소 : 시청 뉴스

△ 과학교육과

행사명 : 과학교육과 축제(망원경과 현미경)
일시 : 5.14~15 9시~5시
장소 : 사범대 일원

△ 수학교육과

행사명 : 스승의날 행사
일시 : 5.14
장소 : 3225 강의실

▲ 강연

△ WISE 여성과학기술인 초청강연

강사 : 고명숙 한국전력기술 환경기술실 책임 연구원
일정 : 5.14
장소 : 자연대 2호관 세미나실

△ 학습법 특강

강사 : 손미나 KBS 전 아나운서
일정 : 5.17
장소 : 법정대 강당
신청 :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5.15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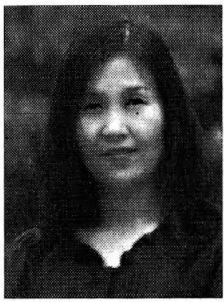
종합면 개편안내

제주대신문은 독자들의 이야기를 더욱 다양하게 담아내고자 다음과 같이 종합면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앞으로 종합면에서는 독자들의 다양한 사진수기인 '포토에세이', 각 학과의 행사를 알리는 '금주의 행사' 등을 실습합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행사 및 사진은 press@jeju.ac.kr로 매주 금요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포토에세이에 사진이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론유설

다문화사회 향한 지역정책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돼야



염미경 사회교육과 교수

지난해 말 국내 총 체류 외국인 과 이민자는 116만8477명(제주도는 7,343명)으로, 우리 사회는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풍부한 사회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관련 법률 조제 제정과 재정지원을 통해 다문화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해왔고, 그 목표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제고와 질 높은 사회통합의 실현에 두고 있다.

다문화가족 용어 속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새터민 등 다양한 종족적 소수자 집단이 포함되지만 정부의 법률 조제 제정이나 재정지원 대상에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한국인이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우리 정부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이 혼인 또는 입양을 통해 형성한 다문화가족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통합정책의 '최우선 수혜집단'이라고 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생활 실태는 어떠할까?

지난해 전국결혼이민자 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고 100만원 미만도 21.3%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다. 이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은 결혼이민자가 국민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국적을 갖고 있지 못하면 원칙적

으로 배제되며, 한국인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결혼이민자들은 그들의 출신국, 학력수준,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구사능력,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지원 정책 수요는 제각각이다.

그렇지만 결혼이민자를 동질적인 한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주소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2008년 5만 8000명에서 2009년 10만3000명으로 급증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성인이 되어서도 한국 사회의 비주류로 혹은 저소득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 혹은 '다문화 아동'이라는 표현도 통용되고 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사회적 편견을 만들어내고

차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행사가 열린다. 이들을 위한 행사보다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치방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가족에만 국한된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 대상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인들의 외국인이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배타의식은 차별적인 태도로 발현된다.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국인들이 외국인과의 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태도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학교교사와 일선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의 체계화, 교과간 융합에 근거한 학교 다문화교육시스템의 마련, 사회구성원들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사회를 향한 지역정책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사설

소통의 질을 높여라

요즘 웬만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것은 '소통부재'이다. 소통이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처럼 여기저기 사용하면서 진부한 표현이 되어가고 있기도 하다. 소통부재라는 표현을 애용하는 사람들은 소통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우선 소통의 양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대화의 장이 얼마나 자주 마련되었는지 그 지표가 될 것이다. 근원적으로 양적으로 어느 정도의 횟수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질적으로 우수한 소통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소통은 부족할 수 있다. 흔히 이것이 소통부재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통의 측면이다. 어느 모인이라도 한 말씀 하는 양반들은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갖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이게 소통의 양적 측면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의 질이다. 소통의 질적 측면은 내용적 측면과 전달적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유효하게 전달하느냐이다. 말을 잘하는 것이 끊임없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좋은 내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말하는 능력이다.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에서도 구성원은 다양하다. 계층도 다양하다. 그런데 대화를 가만히 듣다보면 소재가 빈약하다. 대화의 주제는 그 밖에 그 나뭇잎이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몇 가지 안되는 주제를 가지고 평생 살면서 심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또 새로 생긴 음식점에 관한 얘기,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심, 선거에 관한 얘기 등 지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할 수도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지낸다. 물론 이때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도 필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이런 내용으로 소통하면서 지내는 것은 매일 만나도 헛소릴만

하는 것이니 소통부재와 다를 바가 없다.

효율적인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형편없다. 우선 회의를 예로 들어보자. 여러 가지 회의를 경험하지만 많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회의일정과 장소가 전화로 공지되지만 전자우편과 같이 눈으로 보는 매체에 의해 공지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장소와 시간은 공지되지만 회의주제와 내용은 공지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공지가 되는 경우에도 자료가 미리 배포되는 경우가 없다.

이는 미리 생각해오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회의 자료는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논의를 하는데 시간을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게 만든다. 회의 결과는 제대로 전자우편으로 나중에 보내오지 않는다. 회의 결과 다음 회의전까지 하기로 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소통은 해도 밥값만 들어간다. 여기저기 썼던 자료를 두서없이 복사해서 늘어놓은 것을 회의 자료라 하고 일단 모이고 보자는 회의는 소통이 아니라 소통을 빙자한 잔치이다.

언어수준도 심각하다. 어휘도 부족하고 부적절한 단어가 남발된다. 효율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기가 효율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이고 시간이 철철 넘쳐나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개념이다. 효율적이면 그만큼 심심한 시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간단히 얘기할 것도 돌려서 말하고 전후사정에서부터 자신의 할약까지 장황하게 늘어놓는 무용담식 대화가 진행된다. 놀라운 것은 중학생 수준의 어휘가 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수준을 반영하면 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소통의 양은 충분하다. 필요이상 만나고 있다. 그런데 질은 좀 높여야 할 것 같다.

미디어 세상읽기

정책 선거 막는 경마저널리즘

내달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의 선거 보도에서 여론조사가 남발하고 있다. 정책 선거는 사라지고 오로지 후보들 간의 '지지를 경주'만이 뒤덮고 있다. 거기다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 모 후보 동생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번 선거를 인간 흥미 위주로 다루고 있다.

지역언론은 예비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이후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내며 당선 유력 후보들을 양산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각 선거 캠프에서 선거 전략과 아젠다를 만들기 위한 내부 자료에 불과했던 여론조사 결과들이 곧바로 선거 보도의 주된 테마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즉각적인 여론형성에 민감한 인터넷뉴스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예 선거보도의 지배적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일 정도다.

어느 지역신문은 지난 4월 초부터 도지사, 교육감 선거는 물론 도내 29개 지역구 및 5개 교육위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매일 1면에 싣고 있을 정도로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언론이 표본이나 조사방법에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지나친 단순화와 성급한 예단까지 곁들이고 있다.

이러한 흥미성에 집착하는 선거 보도의 특성을 '경마저널리즘'(Horse race journalism)으로 일컫는다. 마치 경마를 취재하는 기자처럼 '오로지 누가 앞서고 누가 뒤지느냐'에만 집착하여 보도한다는 뜻이다.

언론은 선거전이 시작하자마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후보자 경쟁 간에 승패가 난 듯 단정적 어조의 보도들을 쏟아낸다. 이어 관세굴기라도

하듯 승자쪽 보도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그 결과 지지율도 따라 오르는 식이다. 즉 언론이 철저히 경쟁구도로 문제에 접근하고 승자에게 주목해, 잦은 노출로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해주며, 결과적으로는 캠페인커를 도맡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론이 정책 이슈들을 충실히 기술하기보다 정치를 이기고 지는 과정으로 구성하는 경마 보도는 결국 정책 검증 없는 인기몰이 투표율 부추기며 실제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높다. 물론 누구나 매니페스트 같은 정책 선거를 얘기하지만 뉴스 속성상 고리타분한 이슈 또는 배경이야기 보다는 역동적이고 빠른 뉴스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이슈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경마의 재미를 따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후보자들도 유권자들을 지루하게 만들까봐 민감한 이슈를 거론하는 걸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더해 언론은 이슈를 약화시키고 후보자의 이미지에 집착함으로써 부수적인 효과를 창출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언론은 선거의 쟁점과 후보자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보도, 논평 등의 방법을 통해 도민에게 전달해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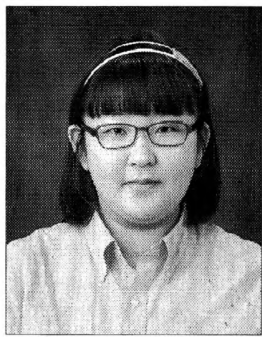
또 후보자간의 정책·정강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치열한 레이스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만큼' 이러한 유혹을 극복해나기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지역언론 보도가 완벽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이기는 힘들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정용복 대기자



독자기고

피드백 없는 리포트 무용지물



김미나 사회2

대학에 들어와 벚꽃을 두 번째 맞이하고 중간고사를 치른 요즘 누구나 할 것 없이 리포트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리포트를 보고 있으면 누군가는 그림을 그려 넣고, 그 모습들이 학생들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하다.

리포트의 표지만큼이나 그 내용도 또한 다를 것인데, 우리는 리포트를 통해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손쉽게 온라인상에서 대학생들의 리포트를 파는 곳이 있기 때문에 리포트가 그저 점수를 받기 위해 내기만 하면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배움에 있어서 우리는 꼭바로 알아야 할 필요성과 함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부족함을 알기 위해 리포트도 쓰고 시험도 보는데 피

드백이 없는 리포트는 일방적인 면이 있다. 몇몇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의 리포트를 읽으신 후, 피드백을 해 주시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교수님도 계신다.

하지만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화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손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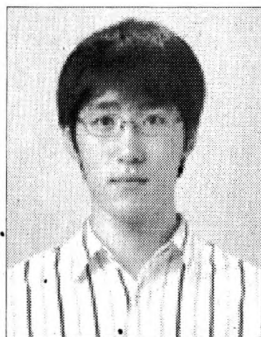
또한 자신의 리포트가 몇 점인지, 화점이 얼마나 되는지 학기말에 알 수 있으니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낸 리포트가 몇 점인지조차 알 수 없는 리포트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어느 학교에서는 리포트를 모두 끝낸 후, 마지막 장에 교수님께 '피드백 주세요.' 라고 하여 여백을 두어 붙여 넣는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기 전 공이 따로 공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리포트를 넘어서서 대학이 교수와 학생 사이에 의견이 오가고 학문의 범위를 넓히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

또한 그것을 계기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 식의 제출의 목적이 아닌 학문을 연구하는 진지한 지성인의 리포트로써 바람직한 문화가 자리 잡기 바란다.

독자기고

대학생이 투표 해야하는 이유



고명수 정치외교3

'6·2 지방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총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선거로 손꼽히는 국가적 행사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도지사, 도의원, 교육감, 교육위원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선거에서는 나이, 성별, 학력, 기타 모든 사항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1인 1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간섭하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개표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후보가 해당 직책에서 임기동안 업무를 맡게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수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 간단한 원칙이 올바

로 지켜지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4·19 혁명을 시작으로 한 민주화의 열망은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항쟁으로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두가 꿈꾸는 민주 사회를 위해 피와 눈물을 흘려야 했다. 지금 우리는 그 분들의 희생을 만들어 낸 민주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이룩한 민주화의 결과물인 투표에서 20대의 투표율은 어떻게?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실시된 5·31 지방선거에서 전국 20대의 투표율은 33.9%로 전체 유권자 투표율인 52.1%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선거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모두가 꿈꾸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이 바로 투표다. 꿈을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난다고 했듯이, 투표할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는 올바르게 행사되어 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오피니언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ress@jejunu.ac.kr
홈페이지 http://www.news.jejunu.ac.kr

백만 제주인 네트워크의 산실이 될 재일제주인센터 설립

재일제주인과의 다각적 협력 위한 총체적 연구 담당

김창인 회장 뜨거운 고향사랑으로 거액 쾌척 밑거름... 교류의 장 기대

제주대학교가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재일제주인센터'가 오는 6월, 드디어 센터설립과 함께 건물 기공식을 갖는다. 물론 이 건물은 문화교류관이라는 명칭으로 박물관과 함께 입주하게 되는 복합 건물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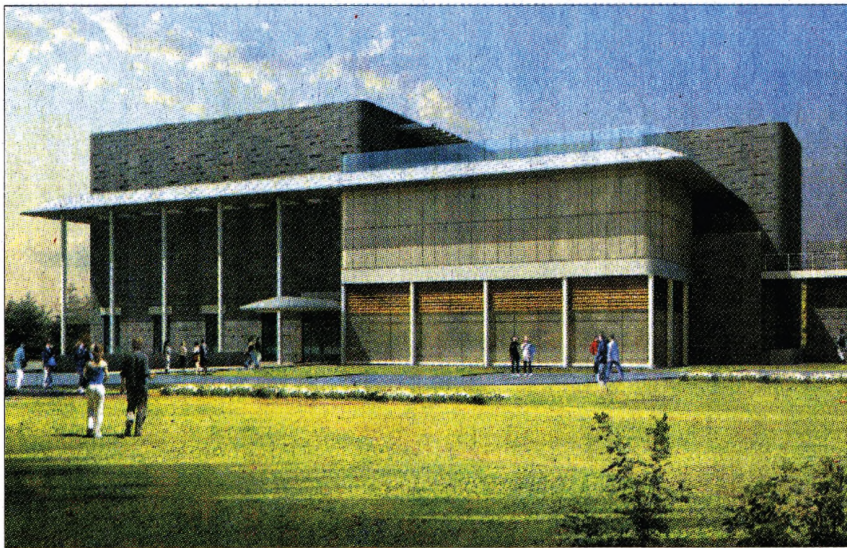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일제주인센터의 설립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출신 재일동포들이 그동안 고향에 보여주었던 사랑과 헌신을 기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들이 살아온 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물론이요, 고향을 잘 모르는 3, 4세들을 대상으로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참모습을 알릴 수 있는 문화와 언어 교육도 병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 센터 설립을 통하여 건물 건립에 큰 힘을 보태주었던 오사카 남해회관 김창인회장의 인생철학을 후학들에게 알리고 제주를 찾는 동포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더불어 일본에 있는 고급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고향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와 항상 함께 했던 재일제주인

알고 보면, 재일제주인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굴곡과 역경, 피와 땀과 눈물이 섞인 삶을 살아왔다. 고향에 빨리 돌아가기 위해 오직 성공만을 생각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한시도 고향을 잊지 않았다. 잠시라고 생각하며 떠났던 그들이 끊임없는 격정과 애정을 자신의 고향에 쏟아 붓는 이야기는 제주근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런 희생과 애정이 지금의 제주발전을 견인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제주의 60년대와 70년대는 특하면 보릿고개였다. 모든 것이 모자랐고 지랄하기에는 힘이 부친 시기였다. 그 시절, 고향 학교에 품급이나 잡지, 책, 약기 등을 보내주면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풍성하게 해 주었고, 마을회관, 도로, 전기, 수도 설비 등에도 기부를 아끼지 않아 고향마을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감귤 목욕을 보내주어 그 나무들을 대학나무로 만들어 준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존재는 제주인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일제주인센터 조감도.

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지만 실천에 옮기는데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왜 제주를 믿지 않을까?

제주대신문사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재일제주인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담기 위해 약 3년여에 걸쳐 기획취재에 나섰다. 그 해 9월부터 '재일제주인의 삶과 미래', '재외제주인의 삶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8면에 연재된 기사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향 제주와 밀착되어 있는 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고향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내용이었다. 그 연재물 속에 등장한 주인공들은 성공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생생한 일상들이 그려져 있고 고향에 가고 싶어도 비용이 없어 방문하지 못하는 눈물겨운 사연도 담겨져 있었다. 이 연재물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재일제주인센터 건립의 의미는 깊어진다. 이들의 치열했던 삶의 현장과 역사를 조명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역할을 센터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꽤 있었다. 대학 발전기금 모금과 연결한 시기였다. 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 제주사람들은 그들을 자신들의 '돈주머니'로 생각하여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제주사람에게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도의 책임자가 일본을 방문하여 상투적으로 쓰는 말은 '재일제

주인의 그간의 업적에 보답하겠다'는 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을 이제 역으로 그대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천에 옮겼던 일들이 거의 없었고 그로 인해 기대와 믿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투자를 적극 권유했던 도가 본의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그로 인해 신뢰를 크게 잃고 마는 등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거미줄처럼 늘어진 도로와 각종 오염원, 무분별한 개발을 안타까워했다. 어려웠지만 따뜻했던 제주의 옛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가슴아파했다. 일본으로 건너갈 당시, 그들의 마음에는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는데, 원종정이 사라진 지금의 모습에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군사시절에 목매어 소모전을 치루는 고향이 조금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재일제주인센터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 소중한 가치를 연구테마로 삼을 것이다.

센터의 다양한 연구 과제

일본에는 아직도 옛 제주의 모습이 몇몇 남아있다. 오사카의 쓰루하시(鶴橋)시장에 들어서면 제주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광경들을 목격하게 된다. 자리돔과 마른 육포가 가지런히 가판대에 놓인 것을 보면 동문시장의 한 귀퉁이를 연상케 한다. 제주인들은 이곳에서 잠시나마 고향제주를 느낀다. 그리고 제주어로 훈훈한 고향이야기를 꽃아준다. 1세대들은 자기가 낳고 자랐던 고향을, 2세와 3세대들은 고향을 사랑하는 자

신의 부모와 조부모를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제주인들이 존재하는 한, 일본 속에서의 제주 역사는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이어져 나갈 것이다. 이들의 언어와 일상의 삶을 연구하는 작업 또한 재일제주인센터가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 센터에서는 김창인회장의 실천철학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김창인은 해방 다음해에 일본으로 건너가 많은 고생 끝에 큰 성공을 거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의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른 정신으로 일상을 실천한다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인생철학사인 '心'을 통하여 대학의 교양과정에서는 물론, 센터를 방문하는 방문자에게도 이런 그의 마음이 전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세상에 희망을 선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센터에서는 위의 기능과 함께 재일제주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자문은 물론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방문자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도와 도민, 대학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재일제주인센터

재일제주인센터 건립은 제주대학교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제주대학교가 재일제주인의 업적을 기리고 그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주도해 나가겠지만, 제주도 당국과 도민들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부족한 건립기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나가고 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재일제주인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 발굴·유치하여 제주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귀화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나 조선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귀화가 1년에 1만명을 넘는 실정이라서 머지않아 한국인이나 조선인 국적의 의미는 더욱 희박해 질 수밖에 없다. 이들을 우리와 함께 답을 정해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재일제주인센터가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것이다. 시작은 늦었지만 깊이 있는 연구와 역할을 통하여 재일제주인을 경계없이 아닌, 진정한 제주인으로 조망해 나갈 것이다.

이창익(일어일문학과 교수)

외국어교육원 English cafe 문열어

원어민과 놀면서 '프리토킹'

알찬 프로그램으로 실력 향상 기대



지난 7일 영어카페에서 학생들이 원어민 강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외국어교육원 3층에 들어서자 자연스러운 영어회화 소리가 들려왔다. 원어민 선생님과 학생이 즐겁게 영어로 답소를 나누고 있었다. 따뜻한 커피한잔을 마시며 편안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이곳은 외국어교육원이 지난달 12일 개소한 English cafe다.

'English cafe'는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버블룸 속에 있다. 외국어교육원 3층에 위치한 이곳은 영어학습을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잠시 거처하는 휴식처와 같은 기분이 든다. 외국어교육원은 학생들이 아무시간 때나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English cafe는 대학을 찾아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알

아들 점은 이곳에서의 모든 대화는 휴식처와 같은 기분이다. 외국어교육원은 학생들이 아무시간 때나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English cafe는 대학을 찾아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알 아들 점은 이곳에서의 모든 대화는 휴식처와 같은 기분이다. 외국어교육원은 학생들이 아무시간 때나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English cafe는 대학을 찾아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알

아들 점은 이곳에서의 모든 대화는 휴식처와 같은 기분이다. 외국어교육원은 학생들이 아무시간 때나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English cafe는 대학을 찾아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알

아들 점은 이곳에서의 모든 대화는 휴식처와 같은 기분이다. 외국어교육원은 학생들이 아무시간 때나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English cafe는 대학을 찾아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알

스러운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영어에 대한 궁금점을 준비해 와 도움받기도 한다.

English cafe에서는 매일 다양한 영어강좌도 열린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어강좌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곳에서 열리는 강좌는 대학에서의 일반적인 영어강좌와는 다른 것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교과서를 들고 찾아가는 강좌가 아닌,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 영어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강좌다.

월요일 오후 2시에는 강계유 교수가 영화보기 강좌를 연다. 이 강좌는 문학작품과 관련된 영화를 보고 서로 느낀 점을 함께 공유한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Louisa Frank 강사의 Reading club 강좌가 열린다. 이 강좌에서는 문학작품을 돌아가면서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화요일 오후 1시부터는 한국의 문화를 영어로 강의한다. 카페에는 영자신문과 잡지, 책이 비치돼 있으며, 보드게임들이 있어 친구들과 즐겁게 영어로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이창원(외국어교육원) 직원은 "공강 시간이면 학생들이 찾아와 보드 게임으로 간단한 간식이나 점심 내기를 하기도 한다"며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보드게임도 즐기고 음료도 마실 수 있어 찾아오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English cafe에는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이 찾는다. 웃음과 눈물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많이 웃을수록 이른바 '페이스소(슬프고 기쁜 아픈 느낌)'가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모든 삶에는 눈물과 웃음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삶의 한 장면에는 많은 감정과 표정이 녹아있다. 특정 감정으로 단정할 수 없다. 슬프다고 웃지 못할 이유가 없다. 슬픔을 보이지 않기 위해 웃음으로 포장하기도 한다.

웃음과 슬픔은 다르게 보이지만 삶은 긴박하게 존재하는 감정이다.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 동전의 양면같은 성격을 지녔다. <인생은 아름다워>가 좋은 작품인 이유는 비극 안에서 웃음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웃음을 통해 비극을 더 강조했다. 대중들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웃음을 통해 여전히 '인생은 아름다워'며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4·3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희극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4·3을 보며 슬퍼하거나 괴로

영화 세상을 만나다(7)

'지나간' 4·3과 4·3영화에 대한 회고

4·3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희극을 닮으면 어떨까

지난 얘기지만 지난 4월은 다양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다. 만개한 벚꽃을 올려보면 새에 잔인한 사건들과 기억들이 우리 몸을 감쌌다. 움찔쩍쩍 못했다. 발버둥쳐 벗어날려 했지만 거대한 무게감을 지닌 사건과 기억의 사슬은 봄을 즐길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천안함 침몰이 있었고, 4·3 62주년이 있었다.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만물이 소생한다는 3월과 꽃들이 가장 예쁘게 활짝핀다는 5월 사이에서 4월은 소위 '잔인한 달'로 불린다. 올해 우리는 이 문장을 현재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실감해야 했다.

특히 제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올해 4월은 말 그대로 '잔인'하고 또 '잔인'했다. 제주가 특히 4월의 '잔인함'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알다시피 올해 62주기가 된 '4·3' 때문이다. 6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민들에게는 삶 속에 존재한 비극이고 기억이다. 상

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역울한 영령들이 지금도 제주를 지켜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4·3을 한국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라고 한다. 하지만 상처를 입은 수많은 제주도민들은 왜곡된 이념 갈등으로 인해 4·3의 아픔을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다. 한동안 4·3을 맞을 때마다 슬죽어 원통함을 피워야 했고, 눈물을 적셔야 했다. 많은 이들이 신념을 다쳐져 4·3의 아픔과 가치를 지킨 데에 현재 4·3은 한국현대사의 비극으로 변함없는 조명을 받고 있다. 매년 위령제를 열어 이유없이 스러져 간 역울한 영혼들의 넋을 달랜다.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4·3 진실찾기 작업과 유족들을 위한 지원은 변함없이 진행해야 한다.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4·3을 후손에게 제대로 물려주는 과제다. 4·3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과 함께 4·3 안에 녹아있는 평화, 인권, 인간존중 등의 가치를 고스란히 전해야 한

다.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른들과 아이들을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만들까. 그 고리는 무엇일까. 고리를 어떻게 연결할까. 학교교육이 고리를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글에서 말하는 '영화'도 좋은 고리가 될 수 있다.

4·3을 다룬 영화는 많지 않다. 만들려는 시도는 많았다.故 김경철 감독의 <끝나지 않는 세월>과 올해 개봉한 정종훈 감독의 <꽃비> 등 일부 작품이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못했다. 4·3이 지난 역사적 무게감을 돌파하겠다는 사명감과 의지는 충만했지만 대중과 교류에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역사적·예술적 감각과 대중성 사이에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해 어정쩡한 예술성을 내재한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결국 대중들이 공감할 정서를 만들지 못했다. 60여년이 지났지만 4·3은 관습은 대중 영화 한 편 갖지 못했다. 아쉬운 현실이

다. 비슷한 성격의 비극인 '5.18'은 꾸준히 영화로 만들어져 대중들과 연결고리를 형성했다. 대표로 2007년 <화려한 휴가>가 개봉해 800만 이상 관객을 모았다. 이창동 감독, 설경구 주연의 <박하사탕>도 있다. 야구를 다룬 임창정 주연의 <스카우트>도 1980년 5월18일 광주를 배경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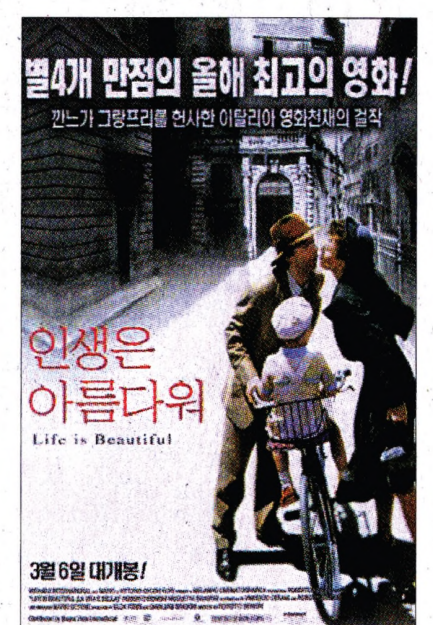
늦었지만 4·3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장르, 형식,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 <태극기 휘날리며>처럼 형제가 4·3을 겪으며 형제애를 보여주는 이야기? 아니면 많은 돈을 들여 4·3당시 벌어진 학살과 전쟁 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액션장르영화? 많은 가능성과 방법이 있다. 물론 제작자와 감독이 선택하지만 내가 연출한다면 이 작품처럼 만들겠다. 바로 <인생은 아름다워>다.

1997년 개봉했고, 이탈리아 출신 로베르토 베니니가 직접 연출, 각본, 연기를 맡은 영화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따

로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영화에서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은 '비극역사'를 다루는 방법이다. 알다시피 이 영화는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벌어진 유대인학살 비극을 다루고 있다. 영화는 비극을 슬픔 그대로 다루지 않는다. 분명 영화는 슬프다. 하지만 영화 전체에 흐르는 정서는 '웃음'이다. 웃음과 눈물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많이 웃을수록 이른바 '페이스소(슬프고 기쁜 아픈 느낌)'가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모든 삶에는 눈물과 웃음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삶의 한 장면에는 많은 감정과 표정이 녹아있다. 특정 감정으로 단정할 수 없다. 슬프다고 웃지 못할 이유가 없다. 슬픔을 보이지 않기 위해 웃음으로 포장하기도 한다.

웃음과 슬픔은 다르게 보이지만 삶은 긴박하게 존재하는 감정이다.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 동전의 양면같은 성격을 지녔다. <인생은 아름다워>가 좋은 작품인 이유는 비극 안에서 웃음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웃음을 통해 비극을 더 강조했다. 대중들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웃음을 통해 여전히 '인생은 아름다워'며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4·3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희극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4·3을 보며 슬퍼하거나 괴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포스터.

위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4·3의 슬픔을 나누고, 아이들을 위한 희망을 발견했으면 한다. 조만간 현실로 만날 것을 기대한다. 4월은 제주에게 비극의 달이지만, 한편으로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희극의 달이기도 하다. 다시한번 4·3 영령들과 함께 천안함 침몰로 희생한 장병들을 추모한다. 부디 영면하시길. 이영문 특별기자